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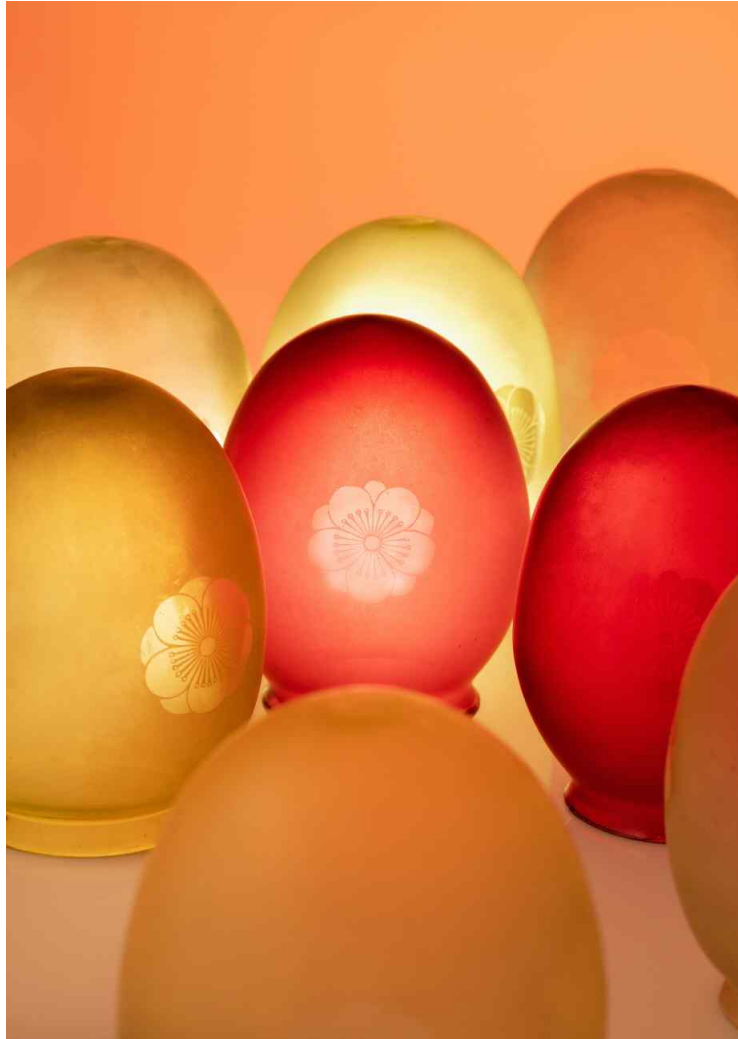
백자 채색 살라미나(Salamis) 병

白磁彩色花文瓶

프랑스 세브르(Sèvres), 1878년

국립세브르도자제작소

프랑스 국립세브르도자제작소에서 제작한 대형 장식용 병이다. 1888년 프랑스의 마리 프랑수아 사디 카르노Marie François Sadi Carnot(1837.8.11.-1894.6.25.)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수교예물로 추정된다. 국립세브르도자제작소의 1888년 8월 출고 기록을 보면 클로디옹 병Vase Clodion 두 점과 함께 살라미나 병Vase de Salamine 한 점이 한국의 왕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병의 내부에는 녹색 마크 “S.78” 와 붉은 마크 “DECORE A SEVRES”, “RF”, “78” 이 남아 있다. S는 세브르Sèvres를, 78은 1878년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RF는 ‘République Française’, 즉 프랑스 공화국의 약자이다.



홍색 오얏꽃무늬 유리 등갓
紅色李花紋玻璃燈罩

1883년(고종 20) 미국을 방문한 보빙사 일행은 밤거리를 환하게 밝힌 전등을 보고, 조선 내 전등 설비 도입을 제안하였고, 1887년(고종 24)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乾淸宮)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불을 밝히게 된다. 궁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전기 시설이 갖춰지면서 밤까지 활동 시간이 연장되어 왕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식기食器 Western-style Tableware of Joseon Court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수입 식기 중 만찬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필리뷔트Pillivuyt의 식기 세트는 백자에 금색 선을 두르고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이화문李花文을 장식하였다. 현재 모든 구성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코스별로 4~6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차려 놓고 각자 음식을 덜어 먹는 프랑스식 만찬을 위한 식기 세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자 색회 고사인물무늬 화병

白磁色會故事人物文瓶

일본, 19-20세기

고란샤[香蘭社]

규슈 아리타의 고란샤에서 만든 장식 화병이다. 중앙에 창을 낸 뒤 중국의 죽림칠현 竹林七賢을 표현하였다. 중앙의 문양 창을 용이 잡고있는 것처럼 독특하게 표현하였는데 이 용 역시 고란샤의 다른 향아리처럼 수목화 풍으로 그렸다. 구름 속의 용은 일본에서 창호 등에 자주 사용되었던 주제이며 고란샤의 주요 도안 중 하나이다. 바닥에 청화로 그린 난과 후카가와가 제작했다는 ‘深川製’라는 명문이 있는데 고란샤의 마크이다.



백자 공작새 꽃무늬 화병

白磁粉彩孔雀花卉文瓶

White Porcelain Vase with Peacock and Flowering Plant Design

중국, 19-20세기

중국 징더전 민간 가마에서 페라나칸을 주소비층으로 제작한 화병이다. 페라나칸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등지에 살던 중국 상인의 후손으로, 중국의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생활에 맞춘 도자기를 주문하였다. 봉황과 모란, 엷은 녹색과 분홍색을 주조로 하는 색감은 페라나칸 자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봉황과 같은 상상의 새를 시작으로 공작, 까치, 물총새 등 갖가지 새를 암수 한 쌍으로 표현하고 연꽃, 모란, 매화, 국화 등의 꽃을 화면 가득 배치했는데 이들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한다.